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1회)

전도관 제8편

이만제단 시대 제5부

차례

이만제단 시대 5부

一. 승리자란?

- 1) 승리자란?
 - 2) 승리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 3) 승리자는 구세주요 이기신 하나님의 대명사
- 二. 승리자는 조희성님

승리자는 박태선 영모님 당신임을 암시하시면서 당신이 대장마귀를 '원투스 트레이트'로 쳐서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긴자가 나타난 다음에는 마귀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승리하여 왕의 반열에 참여하기가 쉽게 된다고 하여 교인들의 마음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2) 승리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어왔다. 그런데 영모님이 1956년, 1년 동안에 알려주는 이 많은 존재들은 과연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가 구세주라면 예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닌가? 영모님이 들린 나타나서 알려주는 이 많은 존재들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에 있는 존재들인가? 참으로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중에도 재림예수를 예비하기 위하여 온 분이 영모님이라고 하니가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영모님은 철저하게 당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시니까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실명이었으나 그때에는 그런 설명을 듣고도 그저 황홀할 지경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존재가 우리나라에 출현했다는 것 자체를 신기해하며 감사해 하는 마음뿐이었다. 열국 왕들을 굴복시키는 동방의인이 예수의 종이라고 해도 그저 놀라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고 따라간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승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승리자도 박태선 영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소사에서 맞이하여 천년성의 왕이 된다고들 생각하면서 그저 황홀한 기쁨의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모님께서 감람나무 동방의인에 이어 세 번째로 증거하시는 놀라운 분의 대명사인 승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목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번씩이나 승리자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긴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가. 목2:7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과실로 저희에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과실이란 생명과(生命果)를 말한다. 생명과는 육적인 과일이 아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나무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말씀으로 보아 이 생명의 과는 영생을 주는 과일이다. 죽음을 주는 신은 마귀요, 영생을 주는 신은 하나님이니 영생을 주는 과일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데 예멘동산의 생명과는 마귀에게 진 생명과이다. 그러나 이긴자에게 주시는 생명과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이므로 여만 마귀의 죽음의 신을 박멸시켜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승리자 출현 이후부터는 죽음의 신이 다스리던 사랑의 세상은 끝이 나고 영생의 신이 다스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인 구세주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승리자에게 생명과를 주신다고 한 것을 보아 승리자는 분명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영생을 주시는 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분이 구세주가 아닐까?

나. 목2:11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에서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말한다. 첫째 사망은 몸이 죽어도 영혼은 구원받는 것. 둘째 사망은 몸도 죽고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즉 영육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한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빛 그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또 보며 죽은 자가 무론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을 펴 놓았으니 곧 생명책이다. 여러 죽은 자가 자기의 행위를 좇아 책들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았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의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구렁탕이에 던짐을 입으니 이것은 둘째사망 곧 불구렁탕이라(목20:11-14)" 이 말씀은 둘째 사망을 말한 성경 구절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영육이 다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니 승리자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다. 목2:17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 있나니 오직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나니라"

위의 말씀은 두 가지 약속이 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든 것과 흰돌과 그 돌 위에 쓴 새 이름을 아는 분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란 모세 때에 먹게 했던 만나와 구분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 때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던 육적인 양식의 만나였으나 이긴자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만나이다. 그래서 이 만나를 구분을 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요6:49참조) 이 감추었던 만나가 곧 이슬같은 은혜요 감로(甘露)인 것이다. 이것이 진시왕이 찾던 불로초요 성경의 생명과인 것이다. 이것이 구세주의 증표가 되는 것이다. 이 감로는 조희성님 통해서 폭포수와 같이 내리고 있다.

두번째로 흰돌과 새 이름이다. 여기 흰돌은 소사(素沙)땅을 말한다. 흰 소(素)자에 모래 사(沙)자이니 직역하면 흰 모래다. 모래는 작은 돌이다. 그러나 소사는 흰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흰돌인 이 소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본고장이 되므로 '새 소사'가 되고 '새 이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흰돌 위에 쓴 새 이름을 밝히는 분이 구세주이신데 조희성님이 이 흰돌 위의 새 이름을 소사라고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조희성님이 구세주가 됨이 증명됐다.

라. 목2:27-28 "이기는 자와 나중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또 새벽별을 주리라."

이긴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므로 인류의 구세주이다. 진리의 철장으로 비전리 즉 마귀의 논리대로 끌려가던 이 세상을 진리의 철장으로 박살을 내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중왕이 되시는 것이다. 그분 왕중왕인 구세주는 '새벽별'의 이름으로 오시게 된다는 예언이다. 새벽별은 밝은 별이다. 그래서 밝을 희(熙)자와 별 성(星)자의 합자로 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새벽 4시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새벽별'이 되는 것이다. 밝은 별이라는 함자로 오실 구세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새벽별을 준다든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다.

마. 목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를 벗어 깨끗하게 되어 의인이 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의인 이긴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무궁토록 이기신 의인의 반열에 계속 있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다.

바. 목3:12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저가 반드시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사람 속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이긴자가 그 속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다. 시편 118편 22절에 "장인의 바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께서 이루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말씀이다. 석공들이 쓸모가 없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한 주춧돌이 된다는 말씀이다. 세상이 인정을 안 하고 조롱하고 폄박하는 구세주는 결국 만민들에게 버림받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세주를 버림받은 돌로 표현한 것이다. 이 버림받은 돌이 집을 짓는데 중심 주춧돌이 되고 또 그 주춧돌 위에 세우는 중심의 성전 기둥으로 세워져야 성전이 되는 것이다. 고로 구세주 없이는 마음의 천국을 건설할 수가 없고 또 구세주 없이는 마음의 성전을 건설하여 하나님을 모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각자의 마음 속에 모셔야 천국 성전을 건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 목3:21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두 분의 이긴자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 분이 한 보좌에 앉으신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자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고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에게로 오시어 좌정하시어 일체로 완성된다는 말씀이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에게로 합일되어 출현하신 분이 이기신 하나님인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완성되시는 것을 말한다. 고로 이 말씀은 이긴자가 삼위일체로 완성된 구세주 하나님으로 출현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긴자란 인류가 고대하는 구세주의 대명사이다.*

있는 것이다.

既知其子 復守其母(기득기자 복수기모): 처음부터 그 자식(현상세계)을 알면 돌이켜 그 모체(우주만물의 근원)의 시작을 알 것이다
沒身不殆 塞其兌 閉其門(몰신불태색기태 폐기문): 몸을 숨기면 위태롭지 않고, 그 구멍(욕심)을 막고, 그 문(욕망)을 닫으면
終身不勳(종신불근): 몸이 다할 때까지 수고스럽지는 않다.
開其兌(개기태): 그 구멍(욕심)을 열면
濟其事(제기사): 그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終身不救(종신불구): 몸이 다할 때까지 구하지 못한다.
見小曰明(견소유명):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다고 한다.
守柔曰強(수유유강):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用其光(용기광): 그 빛(지혜)을 이용하여
復歸其明(복귀기명): 그 밝음(빛의 존재)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無遺身殃(무유신양): 몸에 재앙이 끼치지 않는다.
是謂習常(시위습상): 이를 일컬어 항상하는 도(不死永生之道)를 닦는 것이라 한다.*

김주호 기자

도덕경 해설

天下有始 以爲天下母

천하유시 이위천하모

천하에는 시작이 있으니, 그것을 천하의 어머니라 한다

도덕경 52장 해설

천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음으로 현재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시작은 그 부모다. 그렇다면 최초 인류의 조상은 어찌했고, 그 이전의 시작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과 우주만물의 시작을 아는 것, 그것이 인간 삶(道)의 시작

이고 핵심과제이다. 그 시작을 모른다면 현재의 자신도 나의 삶도 제대로 모른다. 도를 못 깨치는 사람은 일평생을 미로 속에서 방황하다가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비극적 종말의 주인공인 것이다. 유독 인간에게만 그 시작의 삶에 의미가 부여된다. 여타 식물이나 동물은 자신의 시작이 어찌했는지 몰라도 그럭저럭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만이 그 시작(근본)을 모르면 길을 잃게 되고, 불행에 빠지게 될 운명에 내던져진다. 불행하게

도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인간 존재의 시작을 모르면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불행한 결말로 끝나게 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100년도 제대로 못 살고 죽는다"는 이 사실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인간은 꼭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어떠한 이유나 변명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도를 닦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도(道) 속에서만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죽음을 넘어서는 길

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도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도덕경의 연재도 바로 이런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죽음 문제를 뛰어넘기 위한 목적으로 비웃던 것이지 삶의 유희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숙명적 불행의 결과는 생명의 실상과 사랑에 이르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생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는 것을 모르고서 죽음이 어땠고, 죽음 후의 세계가 어땠다고 논할 수 있겠는가?

사물의 이치를 살피라치면, 실타래가 어디서 꼬였는지 그 시작을 알아야

영입을 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만사 모든 꼬임도 그 시작을 알아야 비로소 시원하게 풀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시작의 의문을 풀기 위한 생의 연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나 깨나 일을 하나씩 숙제를 결코 놓쳐서는 인간 불행의 근원을 뿌리 뽑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장을 통하여 인간과 우주만물의 시작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간절히 사유하고 궁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天下有始 以爲天下母(천하유시 이위천하모): 천하에는 시작이 있으니, 그것을 천하의 어머니(생명의 본체)라 한다.

既得其母 復知其子(기득기모 복지기자): 이미 시작(어머니)을 알았으니, 돌이켜 그 자식(우주만물)을 알 수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